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리커브남녀개인예선이 열리고 있는 9일 오전 광주남구광주국제양궁장사로 주변으로 고인 빗물을 빼내기 위한 임시수구가 파여있다. /뉴스시스



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단체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남자선수들이 연습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송승현 감독·이우석·김제덕·김우진. /뉴스시스

한국 양궁 리커브, 광주 세계선수권 전종목 '예선 1위' 세계 신기록도 2개 경신 '기분 좋은 출발'

한국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예선 라운드에서 세계신기록 2개를 포함해 전종목 1위를 달성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 리커브 대표팀은 9일 오전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리커브 예선라운드 결과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 5종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우진(경주시청)이 701점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우석(코오롱)은 7위, 김제덕(예천군청)이 11위(예천군청)를 기록했다.

여자 개인전에선 광주 출신 안산(광주은행)이 692점으로 1위에 위치했다. 임시현(한국체대)과 강재영이 각각 3, 4위로 랭크됐다. 이로써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김우진과 안산이 혼성 단체전에 출격하게 됐다.

'광주의 딸' 안산은 고향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첫 리커브 여자 3관왕을 달성할 기회를 잡았다.

세계선수권대회 리커브 3관왕은 지난 2021년 양크턴 대회에서 김우진이 달성한 게 유일했다.

단체전은 각 선수가 쏜 점수의 합계로 순위를 매기는데, 한국이 남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신기록이 2개나 나오기도 했다.

여자 대표팀은 2070점을 기록, 종전 한국이 2018년 월드컵 2차 대회에서 기록한 2053점을 경신했다.

혼성 단체전에 나설 김우진-안산 조는 1393점을 작성해, 2019년 스페르토헤보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강재영-이우석 조가 달성했던 1388점을 넘어섰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컴파운드 여자 개인전 결승, 리커브 단체전 3종목 토너먼트가 4강까지 열린다.

이튿날인 10일부터 남·녀 단체전, 혼성전 메달의 주인공이 나온다.

11일에는 남자 개인전, 12일엔 여자 개인전 결승전을 소화한다.

/이승원 기자

연일 쏟아지는 비... 광주세계양궁 선수 컨디션 '먹구름'

예선 광주국제양궁장, 곳곳 물웅덩이에 대처 역부족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광주에 연일 비가 내리면서 선수들의 기량 발휘에 영향이 가고 있다.

특히 종목의 꽃인 리커브 예선이 진행 중인 광주국제양궁장의 사로가 비에 흠뻑 젖어 진흙탕이 만들어진 탓에 변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날 하루 동안 10~60mm 비가 예보됐다. 전남 화순과 곡성, 영암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집계된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신안 하태도 89mm, 영암 학산 87.5mm, 화순 백야면 79.5mm, 곡성 71mm, 광주 남구 68mm, 광주 동구 46mm, 광주 서구 41.5mm, 광주 북구 23.3mm, 광주 광산 14.5mm 등이다.

대회 기간동안 많은 내리면서 대회 리커브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 광주국제양궁장의 일부 사로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빗물이 고인 상태다.

해외 선수단으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 컴파운드 예선 당시부터 곳곳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독일 선수단 관계자는 "사로가 빗물에 흠뻑 젖어 신발이 잔디밭 아래로 파고든다. 제대로 사로 위에 서있기 힘든 상황인데다 비를 막아주기 위해 설치해둔 몽골 텐트 아래로 빗물이 고이고 있다"며 "몽골 텐트 아래 설치한 의자도 진흙 탓에 가라앉아 마음대로 의자 위에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선수단 관계자도 "날씨가 크게 변수가 되고 있다. 집중력이 크게 떨어

져 성적에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적어도 몽골 텐트 아래에서 집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조직위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급하게 진흙탕이 만들어진 곳마다 모래를 뿌리거나 수도를 파냈지만 비가 연일 내리는 탓에 제대로 된 수습이 어렵다는 해명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민원이 들어온 바는 없지만 경기장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모래 등을 충분히 뿌리고 배수로를 파면서 최대한 선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동취재부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303원... 월 278만327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2983원 높아

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3원, 월 278만327원(209시간 기준)

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생활임금은 올해 1만2930원보다 2.8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월 215만6880원보다 시급 2983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62만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가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누구나 안

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 062-525-9775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